

IFES

뉴스레터

2025년 2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뉴스레터
29호(2월)
목차**

연구활동

1. 연구소 중점사업	03
2. 학술활동	04
3. 교수진 연구활동	06
4. IFES 브리프	08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10

연구소 소식

1. IFES 동정	14
2. 언론 속의 IFES	15
3. IFES 도서관	16
4. 예정사항	18
5. 안내사항	19

연구활동

연구소 중점사업

학술활동

교수진 연구활동

IFES 브리프

북한 · 국제 정세 동향



1. 연구소 중점사업

■ 2024년 주요사업 추진결과 (요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개최: 32회
 - △학술회의·통일전략포럼 6회 △삼청포럼 9회 △세미나·라운드테이블 17회
- 연구서 발간: 4권
 - 「신냉전 시대는 도래하는가」(이관세 외) (2024년 2월 23일)
 - 「북한의 핵과 정치권력 변화」(김상범) (2024년 2월 5일)
 - 「한반도 리포트 2024-2025년」(극동문제연구소) (2024년 12월 24일)
 - 「세계체제와 중국사회주의: 제국화와 문명화의 작용과 반작용」(2025년 2월 10일)
- 한반도포커스 발간: 5권
 - 「기시다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2024년 11월 15일)
 - 「중국의 국가 리스크와 글로벌 대전략 구상의 해부」(2024년 11월 20일)
 - 「한국의 독자적 핵능력 확보 가능성과 과제」(2024년 11월 22일)
 - 「제8차 당 대회 각 분야 결정 사항 이행과 과제」(2024년 12월 09일)
 - 「북한 청년세대의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문화통제」(2024년 12월 24일)
- 북한대학원대 공동 교재 발간 사업
 -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대외편)」(2024년 2월 20일)
- 정기 간행물(학술지) 발간: 8권
 - Asian Perspective: 4권 (No.1 / No.2 / No.3 / No.4)
 - 한국과 국제정치: 4권 (제1호 봄 / 제2호 여름 / 제3호 가을 / 제4호 겨울)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 (5개년 사업 종료)
 - 2024년 '펠로십 프로그램' 3개국 6명 수료
 - 5개년 성과 정리: 백서 발간, 성과보고회 (2024.12.20.)
 - 총 15개국 50명 해외 전문가 프로그램 수료 → 해외 네트워크 확대 기여
- IFES 브리프 및 포럼 발간
 - IFES 브리프: 19건, IFES 포럼: 16건
- IFES 도서관 활동현황
 - 도서관 방문자 설명회: 26회 250명, 개방서가: 도서기증 998권, 도서 나눔 789권

2. 학술활동

■ 『한국과 국제정치』 봄 특집호 워크숍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22일(수)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봄 특집호 워크숍을 개최했다. 창간 41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국제정치』는 봄 특집호를 맞이하여 ‘북중관계와 국제정치이론’을 주제로 편집주간인 신종대 교수(북한대학원대)와 봄 특집호 객원편집인 이희옥 교수(성균관대)를 포함한 필진 및 토론자들이 모여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중 전략적 선택: 전망이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희옥 교수(성균관대)·정해인 연구원(성균관대)이 발표 하였다. 그에 대해 토론자인 이기현 교수(한국외국어대)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중 정책 변화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시도한 논문으로 그 의의가 있으나, 발전된 논문을 위해 기존연구 검토의 비대칭성과 분석틀 및 변인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북핵 문제와 중국의 전략적 내러티브: 대북 정책 정당화와 국제안보질서의 재구성’을 주제로 강수정 교수(조선대)가 발표 했다. 그에 대해 토론자인 한주희 객원연구위원(북한대학원대)은 북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전략적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그 내러티브가 중국의 대북정책 및 국제안보질서 재구성 정책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발전된 논문을 위해 연구의 구성적 측면에서 이론적 논의, 연구방법론 외에 정책 내러티브, 체제 내러티브, 정체성 내러티브의 3가지 차원 내부 위계 구성 및 해당 요소에 대한 관계 규명이 더 명확해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김정은-시진핑 시기 외교적 수사 및 담론 연구(2013-2024)-북중 간 전략적 상이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김규범 연구위원(세종연구소)이 발표를 하였다. 그에 대해 토론자인 정재홍 연구위원(세종연구소)은 김정은-시진핑 시기의 북중 관계를 외교적 수사와 담론을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한 점에서 학문적 기여도가 높으나, 연구 범위와 자료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사례와 각종 도표 및 키워드 정리의 보완을 제시했다.

네 번째, ‘적극적 완충국가론과 북중관계 변화: 북한의 ‘시계추 외교’와 ‘제3세력 전략’을 통한 완충국가의 구분 변화’를 주제로 김한권 교수(국립외교원)가 발표를 하였다. 그에 대해 토론자인 이정남 교수(고려대)는 한반도 혹은 북한에 대해 완충국가 역할이라는 기존의 당연시 되어 온 주장을 통시적이고 공시적으로 종합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했으며, 다만 발전된 논문을 위해 엄밀한 이론적인 논의 및 분석 대상을 분명히 하고 유기적 구성도가 높은 논문의 장절 구성이 보강되면 좋을 것이라 조언했다.

다섯 번째, ‘김일성의 세 차례 한국전쟁 계획과 중국의 동맹 제지’를 주제로 손대권 교수(서강대)가 발표를 하였다. 그에 대해 토론자인 한용준 박사(북경대)는 그간 중북동맹 간 ‘제지’ 기능을 주목한 연구가 부재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새로운 대안적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다만 중국의 북한 통제 가능 여부가 국가 간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 만큼, 단일 측면의 분석 결과만으로 당시 상황을 규정하였다는 연구적 한계도 상존한다고 평하며 여타 변수와의 상관관계도 고려한 후속 연구를 제안했다.

여섯 번째, ‘존재론적 안보와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북중 ‘전략적 협력’을 주제로 신중호 교수(한양대)가 발표를 했다. 그에 대해 토론자인 이동률 교수(동덕여대)는 ‘존재론적 안보’라는 색다른 이론 방법론을 북중 관계 분석에 도입한 것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담보해주는 이 논문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존재론적 안보와 전통적 안보가 현실의 국제정치와 양자 관계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지와 그 외에도 국가 정체성, 북중 관계의 전략적 협력 등 용어 사용에 대한 정의 및 해석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일곱 번째, ‘안보 딜레마의 수평적 확산 모델: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조성민 교수(성균관대)가 발표를 했다. 그에 대해 토론자인 이민규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은 미국의 모든 조치를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를 국제관계이론의 특정 개념 혹은 틀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 모두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평했으며, 다만 안보 딜레마의 수평적 확산 모델의 이론적 근거 제시와 미중 관계, 특히 중국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더 발전적인 논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덟 번째, ‘북한 김정은 시기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중국 전략: 내쉬 균형과 전략적 소다자주의 노선’를 주제로 홍석훈 교수(국립창원대)가 발표를 했다. 그에 대해 토론자인 박형준 교수(건국대)는 최근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중국 전략의 주요 특징을 내쉬 균형 이론과 소다자주의 노선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 매우 유의미한 연구라고 평했으며, 다만 연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북한의 대중국 노선 변화 시점 및 원인 관련 내용 보완과 연구 범위의 구체화와 명확성을 고려하길 조언했다.

금번 봄 특집호 객원편집인 이희옥 교수(성균관대)는 북중 관계 연구자의 풀이 많지 않음에도 이러한 기획을 통해 연구자들이 모여 다각도의 접근방식과 분석도구로서 다양한 이론의 틀로 북중 관계를 분석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평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의 확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1차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성 등 북중 관계 연구의 원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일 중심의 정책 지향과 연구의 편중에서 이번 특집호 기획은 매우 독보적이고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매우 예외적이고 특수한 북중 관계를 일반 국제정치이론을 통해 접근하고 분석하려는 기획은 대단히 도전적이고 학계에 의미 있는 시도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과 국제정치』 봄 특집호는 2025년 3월 31일 발간할 계획이다.



3. 교수진 연구활동

가. 학술활동

임을출 교수

- 1) 북한연구소 '월간 북한' 2025년 1월호 특집 기고
- 일자: 2025. 1. 6.(월)
- 내용: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한국외교협회 학술 포럼 토론
- 일자/장소: 2025. 1. 14.(화) / 한국외교협회 대회의실
- 내용: 트럼프 1기 당시 경험을 공유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면 안보 경제 양면에서 좋은 계기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나.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 1) KBS 남북의 창 '이슈&한반도' 출연 (2025. 1. 4. 토)
- 내용: '김정은이 연말에 지방으로 달려간 까닭은?'
- 2) KBS 뉴스 9 인터뷰 (2025. 1. 13. 월)
- 내용: "트럼프, 김정은과 '스물 딜' 가능성도"...북미 대화 전망은
- 3) JTBC 뉴스 룸 인터뷰 (2025. 1. 16. 목)
- 내용: 트럼프 측, '대북정책' 변화 시사...한국 패싱 현실로?
- 4) CBS 노컷뉴스 인터뷰 (2025. 1. 20. 월)
- 내용: 트럼프 '北비핵화→비확산'으로? 韓패싱 우려
- 5) KBS 뉴스 9 인터뷰 (2025. 1. 22. 수)
- 내용: '트럼프 취임' 짧게 전한 북한...김정은 '대미 메시지' 낼까

조진구 교수

- 1) CBS 남북의 창 '클로즈업 북한' 인터뷰 (2025. 1. 18. 토)
- 내용: 조총련 띄우기... '통일 포기' 따를까

이병철 교수

- 1) CBS 노컷뉴스 인터뷰 (2025. 1. 20. 월)
- 내용: 내란에 박자 놓친 '트럼프 대응'... 또 대행 외교
- 2) 자유아시아방송 출연 (2025. 1. 24. 금)
- 내용: "트럼프의 '북 핵보유' 발언은 계산된 유인책"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동아일보 인터뷰 (2025. 1. 17. 금)
- 내용: "권한 대행도 국가 원수... 최상목, 트럼프와 직접 통화해야"
- 2)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기고 (2025. 1. 20. 월)
- 내용: '워싱턴에서 직접 마주했던 트럼프 1기'
- 3) 연합뉴스 TV 출연 (2025. 1. 30. 목)
- 내용: 트럼프 1기 당시 경험을 공유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면 안보 경제 양면에서 좋은 계기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 1) 시사저널 인터뷰 (2025. 1. 19. 일)
- 내용: '이념 대신 국익' 기준점 삼고, 트럼프가 원하는 핵심을 집중 공략해야
- 2) YTN 출연 (2025. 1. 21. 화)
- 내용: '트럼프 취임식'

최영준 초빙교수

- 1) 뉴스1 특별기고 (2025. 1. 30. 목)
- 내용: '역사의 부정의(不正義)와 정치권의 의무'

조성렬 초빙교수

- 1) 민들레 기고 (2025. 1. 31. 금)
- 내용: '대선 쟁점이 될 자체 핵무장론, 어떻게 대응할까'

4. IFES 브리프

IFES브리프(요약)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 합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2025. 1. 24.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북한연구센터장)

(개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2025.1.22~23)는 국가 운영과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행사로, 2025년을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또한 2025년은 제8차 당 대회 결정사항 관철에서 미비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차기 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는 해로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2024년 내각 사업 정형과 2025년 과업을 제시하고, 2024년 국가예산 결산과 2025년 국가예산을 승인하였다. 또한 새로운 법안 채택(건재공업법, 바다가양식법)과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 명칭을 각각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변경하고 이 내용을 사회주의헌법에 수정 반영하였다.

(특징) 경제 사업 방향의 전환(△"자력갱생"과 "제재 극복"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생활 향상 △농업과 식량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재난(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과 예산 계획의 방향 변화와 예산 수입 확대(2025년 예산계획은 국방력 강화와 중요 경제 부문 투자에 초점)이다. 또한 사회주의 법치 및 국가체제 권위 강화(△바다가양식법: 새로운 법안 채택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 명칭을 각각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변경) 등이다.

(결론과 시사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의 내각 사업보고는 "정비보강과 지속 가능성 확보", "인민생활 향상", "재난 대응 강화"를 주요 특징으로 하며, 과거보다 구체적인 민생 관련 목표와 성과를 강조하였다. 주목할 포인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한 점과 더불어 대외 정책 및 군사와 관련된 언급이 거의 없거나 축소되고, 대신 경제와 민생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 점이다.

대남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남한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새로운 입장 표명이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향후 상당 기간 남한에서의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기 이전까지는 대남 무시 정책 견지가 전망된다.

대미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막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분간 기존의 강대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위가 조절된' 자위적 핵무력 고도화 추진이 예상된다.

※ 브리프 전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IFES브리프(요약)

트럼프 2기 출범, 북핵·한미동맹 변곡점 될까

(2025. 1. 31. 정재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前연합뉴스 논설위원)

(북핵문제 ‘한국 패싱’ 우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비롯한 한미동맹, 북핵 문제, 대중국 견제, 관세 및 공급망 정책 대응 등 안보 및 경제 측면에서 중대한 도전과제를 떠안게 됐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추진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Passing)’할 가능성이 있다.

(북핵문제 ‘스물달’ 가능성)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 대화를 재개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김정은의 핵에 대한 집착 등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핵을 독재체제를 지키는 보험으로 여기는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회담의 의제나 합의의 최대치가 ‘스물 달’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한미동맹의 불확실성) 트럼프 2기 출범과 한국의 탄핵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보의 린치핀(linchpin)인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미동맹은 북핵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대응) 탄핵 사태로 외교·안보 사령탑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대처하기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등 우리나라의 사활이 걸린 중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다는 점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분명하게 알리고 우리의 이익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 이후까지 염두에 둘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에서 복합위기에 처했다. 탄핵 사태와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조성된 복합위기 국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도 있다. 갈림길에 선 우리는 최악의 길, 파국의 길만은 피해야 한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당파적 이익,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 브리프 전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2차 회의' 주요내용(요약)

■ 개요

○ 기간: 2025.1.22.~1.23.(2일간)

○ 7개 의정 상정

- ① 내각사업보고(내각 2024년 사업정형 및 2025년 과업), ② 국가예산보고(2024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 및 2025년 국가예산), ③ '건재공업법' 심의채택, ④ '바다가양식법' 심의채택, ⑤ 중앙재판소 2024년 사업정형, ⑥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⑦ 조직문제

■ 의정별 주요내용

① 내각사업보고(내각 2024년 사업정형 및 2025년 과업)

- 2025년 과업: ▲인민경제 모든 부문 12개 중요고지 점령 및 5개년계획 완수

▲(금속공업)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기술 제고

▲(기계공업)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현대화

▲(건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 및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등 중요 정책 대상 건설

▲(교육) 학교개건현대화 등 교육토대 강화

▲경제관리 개선 사업

▲비상재해위기 대응 지휘체계 보장 등

② 국가예산보고(2024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및 2025년 국가예산)

- 2024년 결산: ▲(2023년 대비) 수입 101.6%(104.3% 성장)

▲지출 103.2% (국방비 15.9% 최우선 보장)

- 2025년 예산: (2024년 대비) 수입 102%, 지출 103.8% 계획 (국방비 15.7% 편성)

* "2025년 국가방위력 중대한 변화 가속, 인민경제 중요부문 투자 집중하여 5개년계획 성과적 완수, 인민생활 향상, 과학·교육·보건·문화 등 사회주의건설 전 분야 전면적 발전 담보"

③ '건재공업법' 심의채택: 건재생산 토대 구축 및 다종다양 건재 생산보장 문제

④ '바다가양식법' 심의채택: 바다가양식장 조성 및 양식물 생산·처리 관련 문제

⑤ 중앙재판소 2024년 사업정형: 사회주의법률제도 강화 및 전사회적 혁명적준법기풍 확립

⑥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 기관 명칭 수정: 중앙재판소 → 최고재판소 / 중앙검찰소 → 최고검찰소

⑦ 조직문제

- 법제위원회: 위원 김철원, 김정수, 리성범

- 외교위원회: 위원 강윤석, 정명수, 윤정호

- 예산위원회: 위원장 김덕훈, 위원 리지남

북한

- 1.1. 김정은, 신년 경축공연 관람 (1.7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1.2. 김정은, '2024년 노력혁신자·공로자들',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과 만나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기념사진 (1.3.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1.6. 김정은, 미사일총국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화상 참관 (1.7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1.6. 김정은,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참석 (1.7.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1.13 박태성 내각총리, 락원기계종합기업소, 신의주화학섬유공장,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지휘부 등 주요 사업 부문 현지요해 보도(1.13.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1.20.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북-벨라루스 관계 "친선협조 지향하면 기꺼이 환영할 것" (1.20. 조선중앙통신)
- 1.22.~1.23.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 진행 (1.24.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1.25 김정은, 중요무기체계(해대지 전략 순항 유도무기) 시험발사 참관 (1.26.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1.26. 김정은, 핵물질생산기지 및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보도 (1.26.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무기급핵물질 생산 주요 핵심공정들 돌아보며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와 전망계획, 2025년 핵무기연구소 계획 등 요해
 - 2025년을 8차 당 대회가 핵무기연구 및 생산부문에 제시한 5개년 과업 완수 및 핵무력 강화노선 관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계획 초과 수행과 '핵방패' 강화의 획기적 성과를 이룩할 것을 지시
- 1.26.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 한미 '쌍매훈련'에 반발 "초강경 대응이 미국 상대 최상의 선택" (1.26.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1.27. 당중앙위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 김정은 "중대 당내결함 대담하게 인정, 혁명에 이롭고 유리" (1.27.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당내규율위반 및 특권특수행위 발생(남포시 온천군 및 자강도 우시군) 관련 비서국 확대회의 소집. 당규약에 따라 '특대범죄사건' 엄정 처리 선포
 - 김정은은 "중대한 당내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에 특대사건화 하는것이 혁명에 리롭고 유익"하다며, 직급을 남용한 '특권계층' 형성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당규율 확립을 재강조
- 대남 소식 게재
 - ▲대통령 체포 관련 외신 반응 ▲대통령 탄핵 심판 및 구속기소 등 소식 관영매체 게재 (1.3., 1.17., 1.24., 1.29.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미국 / 일본

- 서울서 오늘 한미 외교장관회담…'굳건한 동맹' 강조 (연합뉴스, 1.6)
- 블링컨 미 국무장관 "러시아, 북한에 첨단 위성 기술 공유 의도 있어" (연합뉴스TV, 1.6)
- 미국 국방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역내 동맹국과 협의할 것" (한국일보, 1.9)
- "트럼프, 우크라 군사지원 당분간 계속…6개월내 종전 가닥" (KBS, 1.10)
- EU수장, 트럼프 취임식 초대 못받아…대서양동맹 '불화' 예고 (연합뉴스, 1.12)
- 美 국방부 "러 파병 북한군, 유능한 전력…분명한 위협" (중앙일보, 1.14)
- 美 국방장관 지명자, 北을 '핵보유국'으로 지칭 (동아일보, 1.15)
- 트럼프 "김정은 핵보유국"…북·미 핵군축 협상 현실화하나 (경향신문, 1.21)
- 트럼프 2기 첫 퀴드 외교장관 성명…'한반도 비핵화' 사라졌다 (뉴스1, 1.23)
- 트럼프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해보겠다", "중러와 비핵화 가능" 핵군축 추진 시사 (KBS, 1.24)
- 미일 외교 "북 미사일 발사 규탄…한미일 협력 중요성 재확인" (KBS, 1.7)
- 일본, 추가 대러제재 발표…"북한 개인 포함" (SPN, 1.11)
- 日, 나토와 협력강화위해 대표단 공식 창설…이자와 대사 취임 (뉴스1, 1.16)
- 日이시바, 트럼프 '北 핵보유국' 발언에 "핵개발 절대 용인안돼" (KBS, 1.27)

중국 / 러시아

- 타이완 당국 "중 화물선, 타이완 해저 케이블 고의 절단"… 한국에 SOS (SBS, 1.6)
- 중국 "미국 시립 수출통제는 전세계 기업에 심각한 손해"…강력 비판 (KBS, 1.14)
- 中, 대만에 무기 판매 美 방산업체 제재 4곳 추가…올들어 3번째 21곳 (뉴스1, 1.16)
- 지난해 방북 러시아 관광객 1500명…"기대보다 저조" (채널A, 1.14)
- 러시아-이란 '밀착'…'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 (KBS, 1.18)
- 파병 북한군, 하루 92명꼴 사상…이대로면 4월엔 귀멸 (서울경제, 1.19)
- 러 "트럼프 정부엔 협상 기회 있어…바이든 때는 절망" (연합뉴스, 1.22)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예정사항

안내사항



1. IFES 동정

가. 2024년 업무추진 결과 직원 워크숍 개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6일(월) 오후 13시 30분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연구소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4년도 부서별 업무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2025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2024년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향후 개선 발전시킬 사안 도출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특히 2025년에는 사업담당 책임제를 실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도출하고 연구소의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초빙연구위원 초청 신년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2025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초빙교수·초빙연구위원 초청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 김선향 학교법인 심연학원 이사장과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 4명(강인덕 前통일부장관, 안호영 前주미대사, 이수훈 前주일대사, 조병제 前국립외교원장), 초빙교수 4명(박노벽 前주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사, 전령현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조코리 한국뉴욕주립대 조교수, 조성렬 前오사카 총영사)이 참석하였으며,

또한 초빙연구위원 8명(박소혜 前국회도서관 관장실 비서관, 서주석 前국방부 차관, 정재용 前연합뉴스 선임기자, 김영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법학교수, 곽채원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권금상 북한대학원대 객원연구위원, 최진환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교사)과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진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신년 오찬 간담회에서는 ‘2024년 주요사업 실적 및 2025년 계획’ 등 연구소의 중점사업을 설명하고,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 전망 등 대내외 정세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재규 총장은 참석자들에게 “지난 한해 연구소 발전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2025년에도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을 위한 학문적 연구 발전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6. 연구소 직원 워크숍 >



< 1.20. 초빙(석좌)교수 연구위원 초청 신년 간담회 >

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인사 변동사항

- 임을출 교수 (2025.2.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박준혜 초빙연구위원 (기간: 2025.2.1.~2026.1.31.)

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시설 공사

- 공사명(기간): 잔디광장 화단 대리석 교체공사 (2025.1.23.~27.)

2. 언론 속의 IFES

■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초빙교수·초빙연구위원 초청 신년 간담회 개최 결과 언론보도 (2025. 1. 20.)

CNB뉴스, 아시아경제, 한국공보뉴스, 경남도민신문 등 7개 국내 언론사에서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 초빙교수 초빙연구위원 초청 신년 간담회』 개최 내용을 보도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초빙교수·초빙연구위원 초청 신년 간담회 개최”

3. IFES 도서관



< 주요 기사내용 요약 >

(아시아경제) 송종구 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20일 오전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2025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초빙교수·초빙연구위원 초청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대 박재규 총장, 심연학원 김선향 이사장과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 4명(강인덕 前통일부 장관, 안호영 前주미대사, 이수훈 前주일대사, 조병제 前국립외교원장), 초빙교수 4명(박노벽 前주러시아·우크라이나 대사, 조성렬 前오사카 총영사 등), 초빙 연구위원 8명(서주석 前국방부 차관, 정재용 前연합뉴스 선임기자 등),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신년 오찬 간담회에서는 '2024년 주요사업 실적 및 2025년 계획' 등 연구소의 중점사업을 설명하고,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 전망 등 신년 대내외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출처: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12013184008776>

3. IFES 도서관

가. 국회도서관내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서가 운영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1층 107호)내에 극동문제연구소 발간자료 서가가 운영되고 있다. 본 서가를 통해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최신 연구총서 및 정기간행물, 연구(정책)보고서 등을 국회도서관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극동문제연구소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도 극동문제연구소는 국회도서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교류·협력을 통하여 연구결과 자료들을 확대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나. 도서관 환경개선

연구소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과 쾌적한 환경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특수자료 추가 확보를 위해 △북한자료실 서가 재배치 및 노후화 장비 교체 △일반자료실의 정기 간행물 전시서가 등을 재배치하였다.



다. 도서관 홍보자료 제작

연구소는 도서관의 역사 현황 주요 특징 등을 소개하기 위해 4개 국어 홍보자료를 제작하였다. 동 자료에는 국내 최고의 북한 특수자료 장서 현황과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에 대한 소개 및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의 학술적 네트워크 현황, 도서관 이용 안내 등이 수록되었다.

향후 연구소는 도서관 방문 국내외 연구자와 기관 및 학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배포할 계획이다.

4. 예정사항

라. 개방서가 운영 현황

연구소는 도서 나눔을 통해 연구자들이 북한 통일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 서가를 운영하고 있다. 2025.1월중 개방서가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개방서가 운영 현황: 도서 기증 32권, 도서 나눔 29권

4. 예정사항

가. 제75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2.0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75차 통일전략포럼

2024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2025년 2월 4일(화) 14:00-17:3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평화관 1층)
● 사회: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제1세션 14:00-14:30	북한 정지: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전망 발표: 권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토론: 정준희 (새항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위원)
제2세션 14:30-15:30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 변화와 전망 발표: 정영철 (서강대 교수) 토론: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제3세션 15:30-16:10	북한 대외정책 ①: 트럼프 2기 출범과 북한의 대미전략 전망 발표: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노규혁 (한라대 초빙교수,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제4세션 16:10-16:30	북한 대외정책 ②: 북러관계 지속 및 변화 전망 발표: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안경호 (국방대 교수)
제5세션 16:30-17:30	북한 경제: '경제발전 5개년계획' 성과 평가 및 전망 발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토론: 최자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QR코드 ※ 뒤 세부발령은 신청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신청 <https://forms.gle/y32j1qjgduCufvRt5>
※ 문의: sophia@kyungnam.ac.kr / 02-3700-086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서울특별시 중로구 북촌로 15길2(신정동) <https://ifes.kyungnam.ac.kr>

나. 2025년 한반도정세 세미나 개최 (2.05.)

다. 「세계체제와 중국사회주의: 제국화와 문명화의 작용과 반작용」 연구서 발간 (2.10.)

○ 이상만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5. 안내사항

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 모집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1. 학술지 소개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등재학술지를 유지하며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 투고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3. 발간일: 3/6/9/12월 말일(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4.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최대 150매 이하)
5. 원고접수: 투고규정(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 참고하여 작성 후,
JAMS 온라인투고(<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6. 투고자가 지불하는 기본 게재료 및 심사료는 없으며, 연구비 수혜논문인 경우에만 100,000원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실(02-3700-070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투고 바랍니다.

『한국과 국제정치』는 투고자에게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논문을 게재하신 분들께는 논문집을 발송해 드립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나.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연회비

- 학생회원: 30,000원/일반회원: 50,000원/기관회원: 10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 이용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